



26일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린 '제 1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참가자들이 대회에 앞서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함평=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늦가을 그린' 수놓은 아마골퍼들의 축제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 성황

최강자전 천현기(75타)·문은주(78타) 우승

순수 남녀 아마추어 골퍼들의 가을잔치인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속에 성료됐다. 4개월 양산디너스티CC에서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방식으로 일제히 경기에 투입한 160명(40팀)의 선수들은 함평다이내스티CC의 뛰어난 경관을 감상하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성기중(46·광주시 북구)씨와 박남희(42·목포시)씨는 각각 신페리오 남녀 2위를 차지, 역시 '팀체' 김치냉장고와 함평다이내스티CC 1년간 회원대우 특전을 받아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랠다.

골프의 저변확대와 아마추어 골퍼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펼쳐진 이번 대회 최강자전에서는 천현기(50·광주시 광산구)씨가 전반 39타, 후반 36타를 기록해 합계 3오버파 75타로 우승했으며 여자부에서는 문은주(45·화순군 화순읍)씨가 6오버파 78타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 특전으로 남 77타, 여 82타, 장년부(만41~49세) 79타, 시니어(만 50세이상) 82타 이하 스코어를 낸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US-GTP(미국골프지도자협회) 티칭프로 선발 시험 실기테스트 합격권은 최강자전 남자부 우승자인 천 씨 등 17명에게 돌아가 이들은 티칭프로에 응시할 경우 실기테스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우승자에게는 함평다이내스티CC 1년간 VIP회원대우 특전과 트롬세탁기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신페리오 방식에서는 이현근(34·전북 김제)씨가 전·후반 각각 42타를 기록해 84타, 핸디 13으로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으며 김정화(45·광주시 서구)씨가 여자부에서 82타, 핸디 11로 우승했다.

이외에 베스트드레서상에는 정행용(64·광주시 남구)씨와 박은희(여·40·목포시)씨가 선정돼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제공한 고급 도자기를 부상으로 받았다.

서재복(42·광주시 광산구)씨와 조금숙(49·목포시)씨는 각각 4오버파, 7오버파로 최강자전 남·여 준우승을 차지해 '팀체' 김치냉장고와 함평다이내스티CC 1년간 회원대우의 특전을 받았다.

문명하(48·목포시)씨와 차정숙(여·53·목포시)씨는 이날 경기 도우미들의 투표로 굿 매너상에 선정돼 역시 고급 도자기를 부상으로 받았다.

KLPGA 올 시즌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07 시즌은 신지애(19·하이마트)로 시작해서 신지애로 끝난 해였다. 프로 2년차의 19세 소녀 신지애는 올해 국내에서 열린 18개 대회에 출전, 9개의 우승컵을 들어 담았다. 승률 5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긴 신지애는 다승왕과 KLPGA 대상은 물론 상금왕(6억7천450만원)과 최저타수상(70.02타)까지 휩쓸며 그야말로 '지존'의 자리에 올랐다. 2006년부터 정규투어에 출전한 신지애는 33개 대회만에 통산 상금 10억4천800만원을 벌어들여 이전 정일미(8억8천600만원)의 기록을 갈아 치웠다. 한 시즌 아홉차례 우승도 이전에 없었던 기록이다. 270야드를 날리는 드라이버 샷과 컴퓨터 아이언샷은 페어웨이나 그린을 거의 놓친 적이 없었고 19세라는 나이답지 않게 위기를 극복하는 노련함은 다른



신수들을 속죽이게 했다. 특히 아홉차례 우승 중 다섯 차례를 최종 역전 우승으로 장식하면서 신지애와 같은 조에 편성된 다른 선수들은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었다. 윙양 선수들이 LPGA 무대에 속속 진출하면서 국내 선수층이 얇아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신지애가 결코 '안방 호랑이'는 아니었다. 신지애는 올해 LPGA투어 대회에서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6위에 오른 데 이어 예비마스터스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상위 랭커들과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는 기량을 보여줬다. 이같은 신지애의 질주 속에 '라이벌'이라며 자신있게 명함을 내밀 선수는 없었다. 신지애의 독주 속에서도 작은 이변은 있었다. 올 시즌 최대 상금이 걸렸던 KB국민은행 스타투어 5차대회에서 조영란(20·하이마트)가 우승과 함께 거금 1억2천500만원을 가져가며 무명의 설움을 씻었다. 임지나(20·코오롱)도 예스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앞 부병 중인 아버지에게 선물했다.

다승왕 (9승) 승률 50%

상금왕·최저타수·대상까지

내년에도 독주 계속될 듯

한국에서 열린 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에서는 기상악화로 2라운드만 치러지는 우여곡절 끝에 역대 대회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에게 우승컵을 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존 신지애 앞에서는 찾던 속에 태풍이었고 내년에도 신지애의 독주는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계 세력이었던 지은희가 LPGA 투어 출전권을 받았고 최나연과 박희영도 엘리파잉스쿨을 통해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신지애는 내년에도 국내에 머물며 기회가 닿는대로 해외투어에 출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부문별 우승자 인터뷰



천현기씨 "내년대회서 2연패 도전"
문은주씨 "거의 매일 연습 했었죠"
이현근씨 "함평CC 평생 잊지못해"
김정화씨 "고 3 아들에 생일 선물"

"모든 여건이 완벽할 정도로 최고의 대회였습니다. 내년에도 꼭 참가해 2연패를 노려보겠습니다."
제 1회 광주일보배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최강자전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천현기씨는 "페어웨이 양산디너스와 그린빠르기, 날씨, 경기진행과정 등 모든 대회 여건이 너무 좋아 우승할 수 있었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전반 39타, 후반 36타 합계 3오버파 75타를 기록한 천씨는 다만 "컨디션이 좋지 못해 언더파를 기록하지 못한 게 유일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최저타수가 무려 11언더파로 아마추어 골퍼 수준을 넘어 실력자인 천씨는 아마추어 전국대회 단골 우승자로 서울지역 몇몇 골프장에서 코스 레코드를 작성할 정도다. 특히 그는 퍼터없이 5번 아이언 1개 만으로 18홀을 돌아 90타를 친 이색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구역 3년 6개월, 3번째 아마추어 대회 출전만에 최강자전 여자부 우승을 쟁긴 문은주씨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행운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겸손해 했다. 문씨는 드라이버가 장기로 평소 레플러터에서 남자들이랑 함께 라운딩을 하면서 8

대 초반의 핸디를 기록하는 장타자. 대회출전을 위해 매일 연습장에서 샷을 다듬었다는 문씨는 우승비결을 묻는 질문에 "시간나는대로 연습장을 찾은 결과"라며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페리오 남자부 우승자인 이현근씨도 "주 5회 꾸준히 연습한 것이 우승의 비결인 것 같다"며 연습을 첫번째의 우승 비결로 꼽았다.
부상으로 1년동안 골프채를 놓았다 최근 다시 골프채를 잡은 후 난생 처음 대하는 코스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리던 이씨(구역 10년 핸디 5)는 "생애 첫 우승을 안겨준 함평다이내스티CC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골프장이 될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신페리오 여자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구역 10년에 80대 초반의 싱글 플레이어 김정화씨는 "대회 당일 고 3 아들의 생일이어서 참가를 포기하려 했으나 아들이 출전하라고 권유해 우승까지 하게 됐다"며 우승의 영광을 아들에게 돌렸다.
최저타수가 1오버파 73타인 김씨는 드라이버 비거리가 220m를 기록할 정도의 장타자로 4번째 공식대회 출전만에 우승의 인연 을 맺게 됐다.

대회 이모저모

참가자들 "대회 운영 만족" 한목소리

1주일 前부터 연습 라운딩

○"이날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3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입장, 퍼팅그린에서 실력을 가다듬고 컨디션을 점검하는 등 광주일보배 골프대회에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다시 돌아오는 등 주말골프와 다른 엄격한 룰 적용에 당황하기도 했다. 또 일부 남자선수들의 경우 챔피언 티에서 티샷을 해야 되는데다, 그린스피드가 빨라 스코어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불만을 내기도 했지만 대회운영에는 만족감을 표시하며 내년에도 대회가 또 열린다고 문의하기도 했다.

함평다이내스티CC 관계자는 "지난 한 주 동안 함평다이내스티CC의 코스맵을 익히기 위해 많은 출전자들이 미리 연습라운딩을 해 우승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홀인원 주인공 없어 아쉬움

○"출전선수들은 이번대회 참가를 계기로 정확한 골프규칙을 숙지하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대회는 USGTF-KOREA에서 경기위원 18명을 전 출에 배치, 철저한 경기운영을 통해 대회 공신력을 높였다. 하지만 대부분 공식 대회에 처음 출전한 선수들은 그린위에서 'OK'를 외쳐 동반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으며 돌아오는 날 1벌타를 기록한 뒤

○"홀인원상 상품인 대형승용차 기아 오피러스의 주인공이 나오지 않아 참가자들과 대회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특히 선수들의 경기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임페리얼 7번홀(파3)에서 홀인원과 니어리스트 타이틀을 함께 부여했으나 결국 홀인원상의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다. /함평=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일부 출전자 "OK" 외쳐 웃음

○"출전선수들은 이번대회 참가를 계기로 정확한 골프규칙을 숙지하고,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대회는 USGTF-KOREA에서 경기위원 18명을 전 출에 배치, 철저한 경기운영을 통해 대회 공신력을 높였다. 하지만 대부분 공식 대회에 처음 출전한 선수들은 그린위에서 'OK'를 외쳐 동반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으며 돌아오는 날 1벌타를 기록한 뒤

골프·연도 회원권개 전환기임
특별리 회원권
골프 동시회원권 골프 동시회원권
광주 3,500 광양 900 5,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주 8,200 힐링 7,400
상당반의 (062)351-0095